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단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높은 열에 눝거나 달아서 나는 냄새.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단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높은 열에 눋거나 달아서 나는 냄새.

단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단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단ᄂᆡ 사전 표기 요약	—	—	—	—	●→	—
단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단ᄂᆡ
  19세기20세기
- 단내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단ᄂᆡ, 단내

단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단내’의 옛말인 ‘단ᄂᆡ’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단ᄂᆡ’는 타지 않는 단단한 물체가 열로 몹시 뜨거워지다를 뜻하는 동사 ‘달-’과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단’에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을 뜻하는 명사 ‘ᄂᆡ’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ㆍㅣ’도 ‘ㅐ’로 변하면서 ‘단ᄂᆡ’는 20세기부터 ‘단내’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단내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단ᄂᆡ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단ᄂᆡ

출처 1869 규합총서 10ㄴ

용례 01

문헌 용례

흙으로 항 밋틀 발나 숫불에 말히면 단닉가 ᄂᆞ지 아닐 거시니.

현대어 풀이

흙으로 항아리 밑바닥을 발라 숯불에 말리면 단내가 나지 않을 것이니.

출처 19세기 광재물보 2:41ㄱ

용례 02

문헌 용례

焦 단닉.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단닉, 단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단닉, 단내

출처 1921 조선일보 12월 13일 3면

용례 03

문헌 용례

각금 밥에 단닉가 나고 국에 든 무가 셜닉어셔 씨니를 거르기도 한다 ᄒᆞ오니 그도 싹ᄒᆞᆫ 노릇인가 ᄒᆞ압나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동아일보 12월 1일 석간 3면

용례 04

문헌 용례

빈속에 거름을 퍼 나르랴니 코에 단내가 난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조선일보 9월 27일 석간 4면

용례 05

문헌 용례

불을 잘못 살펴서 밥이 늣게 되어 단내가 몹시 나거든 얼른 참숫(木炭) 한 덩어리를 물에 깨끄시 씨서 밥 우에 언저 노코 밥솟헤 뚜껑을 꼭 덥허 잠시 불을 물리지 말고 두엇다가 푸면 숫이 단내를 모도 빠라 버려 냄새가 안 나게 됩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단내의 보충 설명

중세 국어에서부터 '달다(焦, 熱)'라는 말은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현대 국어에서 '달다'는 '다리미가 달다, 얼굴이 화끈 달다, 애가 달다' 및 '(약을) 달이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내 관련 낱말

달다

단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무림 2020 《국어 어원 사전》 지식과 교양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단내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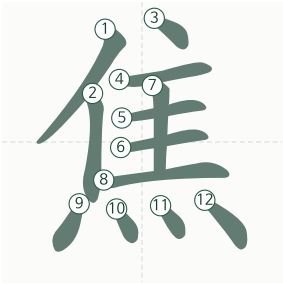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焦 뜻·음 탈[燥] 초

총 12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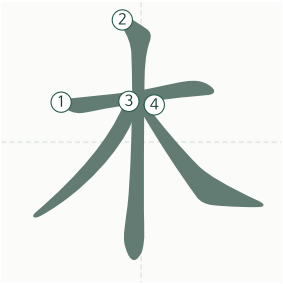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焦/

木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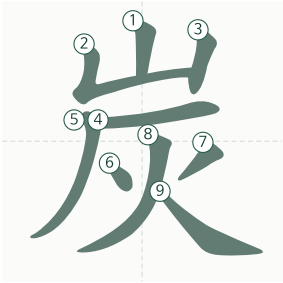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木/

炭 뜻·음 숯 탄

총 9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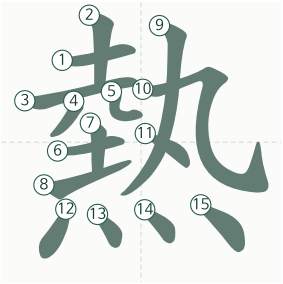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炭/

熱 뜻·음 더울 열

총 15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熱/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